

치과대학 4년을 되돌아보며

서 명 아
영동치과병원 인턴

I. 들어가는 말

4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린 느낌이다. 그만큼 치과대학에서 보냈던 4년이 나에겐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말해보라면 삼일 밤낮을 꼬박 새며 말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 깊숙이 간직되어 있다.

처음에 이러한 글을 써 보는게 어땠겠느냐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기회를 잡은 느낌이었다. 예과를 마치고 본과로 진입한 학생들과는 달리 치과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한 입장에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의견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할 기회로 삼고 싶었다.

화학과 4년을 마치고 편입시험을 거쳐 본과로 들어온 나로서는 대학 입학고사에서 1지망인 치의예과에 떨어졌던 것이 더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화학과에서의 생활을 밑바탕으로 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치과대 4년을 보냈었다. 며칠 있으면 치과대를 졸업

하여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치과의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지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영원한 나의 모교이자 친정 집과도 같은 곳이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고 더 발전된 치과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몸말

지난 4년간 본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은 고쳐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수업과 실습, 원내생교육,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1. 수업에 관하여

1) 반복되는 수업내용, 부족한 교양교육

내가 치과대학 4년을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게 수업을 들은 것이 본과 1학년과 2학년 때뿐이었던 것 같다. 본과 1학년 때 배웠던

해부, 조직, 생리, 병리들은 무언가 응용학문을 배워보고자 목말라 했던 나에게 단물과도 같았고 무엇보다도 내 몸의 구석구석을 탐험해 본다는데 큰 흥미를 느꼈다. 본과 2학년 때는 임상과목들을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실습과 같이 병행하여 하나하나가 새로웠고 교수님들이 보여주시는 임상증례 slide들은 호기심을 자극할만하였다. 그러나 본과 3학년 2학기, 본과 4학년으로 갈수록 그 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하여 한 단계 발전된 수업을 듣기보다는 예전에 들었던 수업내용, 예전에 보았던 slide 심지어 예전과 똑같은 농담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셨다. 의, 치대 학생들은 장차 아픈 환자의 치료, 즉 사람생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밀바탕이 되는 지식 위에 한층 한층 발전된 지식을 연계하며 쌓아가야 그 밀바탕이 되는 것들이 견고히 다져진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안 외워졌던 내용들은 그 다음에 봐도 이해가 안되면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렇게 반복되는 수업과 반복되는 무수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치대 학생들의 stress는 더 쌓여만 가고 한창일 대학생활을 정신없이 보내버려 졸업 후에는 남들이 보기엔 어엿한 치과의사가 되어있을지 모르지만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는 요즘 사회 안에선 도태된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사회의 흐름을 알아야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빡빡한 치대 수업 일정 어디에도 교양, 사회과목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어쩌다

한번 있는 특강수업은 피곤에 지친 치대생들에게 낮잠 시간만 제공할 뿐이다. 얼마전 치과대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다. 여러 교수님들도 문제점을 인식한 듯하다. 매 학기 반복되는 수업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교과과정 개편, 예를 들면 해부, 병리, 생리를 각 장기별로 연계학습 한다든지, 보존과와 소아치과에서 중복되는 수복학을 통일시켜 강의한다든지 ENT, 구강외과, 일반외과를 연계시켜 강의하는 식으로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인문, 사회과학, 교양교육을 받을 시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절실히 느낀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환자들과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메마른 치대생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젊음의 시기를 누구에게도 이끌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보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수업방식

치대에 와서 수업을 들으며 크게 느낀 것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수업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필기한 노트 속에 뿔뿔이 쓰여진 수많은 numbering들만 외우면 무난히 통과하는 시험 때문에 그다지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으로 고등학교 때는 내노라하는 학생들이 치대에만 오면 바보가 된다는 뼈있는 농담이 생긴 것 같다. 의학교육의 특성

상 지식의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단순 암기실력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기 위한 최종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가지게 해주고 공부하고자 할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좋았던 수업이 몇몇 있다. 병리와 구강병리 수업때 했던 case presentation은 수업시간 때 배웠던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여러 교과서를 뒤져가면서 진단명을 찾기까지 같은 조 학생들과 토론하며 고민했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특별히 시험공부로 stress받을 필요도 없었고 머릿속에도 더 오래 기억되어 좋았던 것 같다. 의대에선 지금 이런 방식의(PBL) 수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들었다. 1, 2, 3학년 때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4학년 때 수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종합적 지식을 습득하여 부족한 국가고시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3) 본교와의 연계성 유지

본과 3학년 때 선택과목이란 수업이 생겼다. 처음에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한다는 기대감에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까 미리 고민까지 했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그 배였다. 강의실 부족과 교수님들의 사정을 이유로 단 2과목으로 나누어 선택과목이라는 수업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그 수업내용도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그것이 무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긴 하나 치과대 학생이라고 꼭 치과대내에서만 수업을 받고 치과과목만 듣게 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바로 옆에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본교가 있는데 예과 생활을 마치고 본과로 오면 본교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게되어 무척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는 특히 본교에서 ‘수화’ 교양과목이 개설되었을 때는 이 수업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버릇이 들어 자율학습실보다는 중앙도서관을 더 이용했는데 본교 쪽으로 갈 때마다 늘 새롭게 변화하는 캠퍼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본교와의 연계성을 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4) 학생연구 논문, 연구하는 분위기의 조성

개인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하나 아쉬운 점은 학생연구논문 쓰기에 참여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치대생들은 어떤 한가지 논제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통합하여 글로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 재료학과 약리학 수업의 과제였던 종설쓰기는 도움이 되었으나 창의력은 발휘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연구정신이 없다면 학문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학생들에게 학생논문 쓸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좀 더 발전된 치대생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2. 실습에 관하여

치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고민이 있다.

손재주가 없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처음부터 타고난 손재주를 지닌 학생이라면 옆에서 실습조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척척 해내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만은 아니므로 실습시간이 괴로운 학생들도 있다. 치과대학병원의 수련의들은 수련을 받는다는 원래의 목적 외에 후배들의 교육에도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습조교로 들어오는 수련의 선생님 중에는 자신은 마치 학생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처럼 서툰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보다는 면박을 주거나 자신감을 꺾어버리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학연과 지연에 얽힌 우리사회의 단면을 재연이라도 하듯 자기와 얼굴이 익은 씨클 후배나 고등학교 후배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줄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없지만 실습점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습시간에 편하고자 씨클에 가입한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이다. 몇몇 임상과에서는 외래교수님들을 모시기도 하는데 그 분들은 친절히 잘 가르쳐 주시고 현재 개업가의 현실이나 다른 병원 사정들도 간혹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습하기에 편했던 것 같다. 실습시간이 반을 차지하는 치과대 교육에 있어서 수련의들과 학생들간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원내생 교육에 관하여

나는 운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본과 1학년 때 새로 지은 치과대학으로 옮겨와 최

고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동양최대라는 치과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원내생 실습은 좋은 병원시설과 훌륭한 교수님들의 임상지도하에 이루어져 다른 치과대에서 부러워 할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원내생 임상 실습 program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실습교육을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원내생 생활을 되돌아보면 너무 과열된 경쟁 속에서 동료들을 도와주기 보단 자기일에만 치중하여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처음엔 이러한 것들이 과중한 임상 case와 성적 위주의 수련의 선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학생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는 듯 하다. 앞서 말했듯이 예과 2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뽀뽀한 수업과 시험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조차 없이 본과생활을 하고 나면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빨리 치과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만 갖게 되는 것이다. 예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입장은 되지 못하나 예과 교육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의사로서의 인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과 교육 program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학번부터 시행한 특성화 교육은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이 때 몇 명이 꽃동네 봉사활동을 갔다 왔었는데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니 모든 학

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Ⅲ. 나오는 말

글쓰는 실력이 짧아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이 잘 정리되었는지는 의문이나 이 글을 쓰면서 지난 4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도 계획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문제점만을 쓴 것 같은데 연세대 치대에 들어온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나로서는 좀 더 발전된 치과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들만을 썼다.

막바로 본과로 들어왔고 동기들에 비해 나

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편입생이라 자칫하면 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착한 동기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더욱이 담임반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치과대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치과대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치대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치대인으로서의 결속감이 아주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연세대 치과대가 있지 않나 싶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학생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후배들에게 베풀어주고 싶다.